韓国図書館協会（KLA）会長
イ・ジヌ　/ 이 진우

日本図書館協会 植松貞夫理事長をはじめとする、日本の図書館関係者の皆様、お会いできて光栄です。韓国図書館協会会長のイ・ジヌでございます。

石川で開かれる「第112回全国図書館大会」の開催を、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韓国図書館協会をご招待くださった日本図書館協会をはじめ、本大会の準備にご尽力いただきました関係者の皆様に、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

日本図書館協会と韓国図書館協会は、1999年に交流と協力に関する協定を結んで以来、多様な交流を続けてまいりました。私自身も、富川（プチョン）市の公共図書館の司書として勤務していた頃、2006年に神奈川県川崎市と韓国富川市の図書館関係者間の交流を築くプロセスに携わりました。また、2023年には石川県立図書館を直接訪問いたしました。日本の図書館の現場で得た学びと感動は、今も私にとって大切な記憶として残っております。

今回の大会のテーマである「図書館が希望をつなぐ ～学びと再生の地・石川から～」は、特に胸に響きました。2024年の能登半島地震という大きな困難を経験されたここ石川の地で、「再生」と「希望」を語ること自体が、私たち図書館人にとって大きな意味をもたらしていると感じております。災害の瞬間においても人と情報を結びつけ、共同体の日常を回復させ、再び前へと進む力を創り出すことは、図書館の重要な役割だからです。

現在、図書館界が直面している課題もまた、一国だけの問題ではありません。気候危機、人口構造の変化、急速に変化する技術と情報環境の中で、私たちが共に悩み、解決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が数多く存在します。今年釜山で開催された世界図書館情報会議（WLIC）・国際図書館連盟（IFLA）年次大会におきましても、世界各国の図書館人がAIと情報の信頼性、気候危機、社会的孤立といった共通の課題について議論を交わしました。

私は、このような交流と連帯が、今後、韓国と日本をはじめとするアジアの図書館界において、より一層活発に続いていく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各国の経験と知恵を分かち合い、困難な時には互いに支え合うことができれば、アジアの図書館界全体が共に成長していけるはずです。

韓国図書館協会も、日本図書館協会をはじめとするアジア各国の図書館界と、より緊密に意思疎通を図り、協力してまいります。改めて第112回全国図書館大会の開催をお祝い申し上げますとともに、石川から始まる学びと再生の物語が、より多くの図書館と人々にとっての希望へとつながることを祈念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일본도서관협회 우에마츠 사다오 이사장님을 비롯한 일본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이진우입니다.

이시카와에서 열리는 「제112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도서관협회를 초청해 주신 일본도서관협회와 대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본도서관협회와 한국도서관협회는 1999년 교류와 협력에 관한 협약을 맺은 이래 다양한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저 역시 부천시 공공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면서, 2006년 가와사키시와 부천시 도서관 관계자간 교류를 만드는 데 참여했고, 2023년에는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일본 도서관 현장에서 얻은 배움과 감동은 지금도 제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인 '도서관, 희망을 잇다–배움과 재생의 땅, 이시카와에서–'는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2024년 노토반도 지진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은 이곳 이시카와에서 '재생'과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도서관인들에게 큰 의미를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의 순간에도 사람과 정보를 연결하고, 공동체의 일상을 회복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만드는 것은 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도서관계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 역시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인구 구조의 변화, 급변하는 기술과 정보환경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열린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도 세계 각국의 도서관인들이 AI와 정보의 신뢰성, 기후위기, 사회적 고립 등 공통의 과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저는 이같은 교류와 연대가 앞으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도서관계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각 나라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힘이 되어준다면 아시아 도서관계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도서관협회도 일본도서관협회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도서관계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12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시카와에서 시작된 배움과 재생의 이야기가 더 많은 도서관과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